

꽃자왈 용어 정의를 위한 고찰

최수정 · 현화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I. 서론

꽃자왈의 역사는 제주인들이 제주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할 때부터, 제주인들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다. 꽃자왈이라는 언어 안에는 꽃자왈을 자신들의 삶과 연관시킨 제주인들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 제주도의 선조들은 용암대지 위에 만들어진 용암숲을 자신들만의 삶의 터전이자 보물창고로서 이용하고 보전했다.

꽃자왈은 제주인의 삶과 관련되어 지질, 생태 및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제주인들과 오랜 역사를 같이 해온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공간이다(전문 외, 2015). 꽃자왈의 역사는 제주도가 생성된 배경에서부터 시작한다. 제주도는 퇴적암층과 화산암류 및 기생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쇄설물(噴屑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섬이다(손치무, 1973. 원종관, 1975). 한라산 해발 600m 이하의 저지대에는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 형성된 용암대지가 펼쳐져 있다. 용암대지는 그대로 용암대지로 존재하지 않고 생태적 변화에 의해 시간이 흐르면서 모습을 달리한다. 이때 인간의 특정한 문화·활동과 자연의 변화가 결부되면 자연환경은 본래의 모습에서 더욱 크

게 변한다. 용암 분출 후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였던 용암대지는 오랜 시간이 흘러 나무와 덩굴로 뒤덮였다. 용암대지 위에 만들어진 용암숲, 덩굴과 나무가 뒤엉켜있는 곳을 꽃자왈¹⁾이라고 부른다. 꽃자왈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용암숲이 지속적인 인간의 활동에 의해 점차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화한 곳이다. 제주인들이 꽃자왈을 어떻게 부르고, 인식하였는지에 따라서 꽃자왈의 모습은 불모지나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용 및 보전되거나 혹은 개발되어 흔적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

사람은 언어를 통하여 자신의 사고력을 표현하고, 언어적 진술을 통하여 문화를 전승시킨다(주강현, 2010). 언어에는 그 민속지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담겨있다(주강현, 2010). 자연적인 형성물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언어적, 지리적, 지형 및 지질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일정한 이름으로 불리운다. 최근에 만들어진 다른 생태 용어를 보면 ‘도시숲’이라는 행정용어를 사용한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숲의 중요성이 커지자 도시숲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서 용어 정의를 통해 도시숲에 대한 인식이 넓혀졌다.

‘꽃자왈’이라는 단어도 최근에서야 만들어지고 정의되었다. 꽃자왈은 주로 용암대지 위에 펼쳐진 숲을 뜻하는 말로, 제주도의 독특한 지형 및 지질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꽃자왈’은 제주도민들이 사용하던 옛 말들을 기록한 사전 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제주방언사전(석주명, 1947)』에는 ‘꽃자왈’이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꽃’과 ‘자왈’이 따로 존재한다. 오늘날의 ‘꽃자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1) ‘꽃자왈’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정의는 차후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예전 제주인들이 사용하던 ‘곶’이나 ‘자왈’의 의미와 같다. ‘곶’은 ‘산’이나 ‘숲’을 의미하고, ‘자왈’은 ‘가시덤불’을 의미한다(박용후, 1988). 일반적인 숲과 달리 곶자왈이 용암대지 위에 만들어진 숲이기 때문에 숲 내에 가시덤불이 많은 특성을 반영한 단어인 ‘자왈’이 있었다. 즉, ‘곶자왈’은 현대에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곶’과 ‘자왈’로 따로 불리어지던 숲이 ‘곶자왈’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이름 붙여졌다.

‘곶자왈’이라는 용어는 사회·문화적 경계 안에서 한 시대의 과학적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가치를 표현하고자 약속한 공공의 언어이다(김고운 외, 2016). 약속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용어의 의미를 통해 대중의 사고양식을 유도한다. 이론과 지식, 그리고 이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발전함에 따라 용어에 대한 개념도 함께 발전하기 때문에 개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배경에서 발전되어 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김고운 외, 2016). 제주인들은 선조로부터 곶자왈에 대한 정보를 얻어 몸소 체득하였기 때문에 곶자왈의 소중함과 가치를 몸으로 습득했을 것이다. 제주인들이 곶자왈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는 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고문헌(古文獻)이나 고지도(古地圖)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 당시 곶자왈 지역의 지리적 지식과 지역의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곶자왈에 관한 연구는 나무 덩불이 우거져 개발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지던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높였다. 특히 곶자왈의 식생 및 식물상, 동물상에 관한 연구를 통한 곶자왈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곶자왈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앞선 연구들은 특정 분야에서 대표되는 하나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을 뿐 곶자왈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

있다는 문제가 있다. 꽃자왈과 같은 특정 지역에 관한 생태운동 혹은 생태학 연구는 의외로 전통과 역사를 간과하여 지역의 지명이나 식생을 언어와 연결시키는 복합적인 연구는 소외되어 왔다. 생태학 따로, 언어학 따로 개별 이해방식이 일반화된 조건에서 총합적 이해는 차츰 어려워지고 있다(주강현, 2010). 현재 꽃자왈 정의 또한 다소 추상적이며 제주도 꽃자왈이 갖는 세부적인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꽃자왈의 정의가 매우 다양한 지질, 생태, 역사·문화적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어 짧은 문장으로 꽃자왈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꽃자왈 용어 정립을 위한 통합적이고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와 관련된 문헌 검토를 통해 꽃자왈이 정의되어진 과정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꽃자왈’ 개념이 지질학, 생태학 분야를 포괄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함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고문헌 속 꽃자왈

제주도는 예로부터 탐라국(耽羅國)이라고 불리었다(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탐라라는 말 자체가 고려시대 옛말로 섬나라를 뜻했다(고창석, 2007). 바다를 건너 위치했기 때문에 미지의 땅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은 높았지만 지리적 접근이 어려웠다. 따라서 제주도와 관련된 공식적인 옛 기록은 제주의 현황에 대해 편찬한 관찬서가 대부분이다(이창숙, 2016). 관찬서는 시대

에 따라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를 비롯하여 이형상의 『남환박물(南宦博物)』이 있으며, 정조 시대에 편찬된 『제주읍지(濟州邑誌)』,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이원조의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등과 고종 대에 편찬된 『제주군읍지(濟州郡邑誌)』, 『대정군읍지(大靜郡邑誌)』, 『정의읍지(旌義邑誌)』 등이 있다. 위의 기록들은 제3자 관점에서 제주를 둘러본 후 특징적인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공식적인 기록 외에 개인의 기행·일기 등에 나타난 제주의 기록은 유배생활에서 저술되거나 여행 중에 저술되었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김정 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임제의 『남명소승(南溟小乘)』,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 이건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등이 편찬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 중 김정의 『제주풍토록』은 1년 간의 유배기록으로서 제주 대정에서의 유배생활에서 체험한 그곳의 풍토와 상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글이다. 이 글에는 제주의 기후가 겨울에도 덥고 바람이 세어 병들기 쉽다던가, 비 오는 날이 많아 물기가 많고 가옥들은 초가가 대부분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는 고문헌의 교육적 의미(김유리, 2012), 혹은 그동안 사회사적 관심이나 특산물, 제주 신화 등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주 지역의 통시적인 변천사에 대해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정종우 외, 2015).

이들 고문헌 중 본 연구에서는 꽃자왈이 묘사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 『남사록』, 『탐라지』, 『남환박물』 등 4개의 문헌을 시대별, 성격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문헌 속 꽃자왈에 대해 묘사한 부분을 인용하였다(표 1).

표 1. 꽃자왈이 언급된 고문헌

문헌명	저자	집필시기	문헌 성격	부분 인용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행, 윤은보, 신공제, 홍언필, 이사균 등	1530년	관찬지리지	집녕곶[제주목 동쪽 55리의 거리에 있다. 둘레가 50여 리이다. 藪(수)는 전하는 말로 ‘곶’이라 한다.] ²⁾
남사록	김상헌	1669년	유배 기록	숲(藪)을, 곶(花)이라 한다. ³⁾
탐라지	이원진	1653년	사찬지리지	숲(藪)을 고지(高之)라 한다. ⁴⁾
남환박물	이형상	1704년	제주도지방지(지리지)	큰 숲(藪)은 ‘곶’이라 한다. ⁵⁾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팔도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을 참고하여 새롭게 편찬된 것으로 33-40권의 전라도 지역편에 제주도 관련 기록이 속해 있다. 이중 제주도 꽃자왈 관련 기록에서 ‘수(藪)’는 지방 말로 ‘곶’이라 말하며 꽃자왈(숲) 지명과 관련하여 11개가 등장하는데, 김녕수(金寧藪, 김녕곶), 이마수(尓馬藪, 고(그)막곶), 말응내수(末應乃藪, 명내곶), 개리사수(介里沙藪, 개리모살곶), 사야수(斜野藪, 빗드르곶), 궁괘로개수(弓掛老介藪, 활괘로개곶), 복현수(卜縣藪, 짐걸이곶), 괴질평수(怪叱坪藪, 켓드르곶), 말질가리수(末叱加里藪, 맞가리곶), 대교수(大橋藪, 한드르곶), 대수(大藪, 한곶) 등이다(강창화, 2014). 이들 지명은 대부분 오늘날의 꽃자왈이거나 꽃자왈 주변에 위치하는 숲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곶의 이름은 김녕곶과 같이 김녕 지역의 이름을 본따서 만들기도 하였지만 곶 주변의 오름에서 흘러져나온 용암류를 따라 곶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름의 이름을 딴 경우도 많았다.

이들 꽃자왈 관련 지명 중에서 김녕곶(현,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 일대)을 비롯한 고(그)막곶(구좌읍 종달리), 켓드르곶(현, 조천읍 와흘리 고평동 일대), 맞가리곶

2) 오창명.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제주 지명 연구. 2004.

3) 강창룡. 2016. 꽃자왈의 정의 정립. 꽃자왈공유화재단. 100쪽.

4) 앞의 책. 100쪽.

5) 이형상, 이사균, 오창명 역. 2009. 『남환박물』. 푸른역사. 48쪽.

(조천읍 북촌리 일대) 등 4곳이 현재의 지명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한드리곶, 개리모살곶, 한곶은 그 위치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현재로선 위치나 장소가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통해 16세기 이전 곶자왈 지역에 대한 현황과 각 지역의 곶자왈 지명이 정확히 불리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상헌의 『남사록』에는 1601년 9월 22일 지지(地誌)에 방언으로 숲(叢), 꽃(花)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르기를

“두 개의 큰 곶을 뚫고 가는데, 하나는 4~5리를 가고 또 하나는 3~4리였다. 모두 수목이 하늘을 덮고 있다. 지지에 섬 안에 여러 곶이 매우 많은데, 둘레가 50여리 되는 것도 있다. 그 곶에는 상수리나무(相梅), 무환자나무(無灰木), 산유자나무(山柚子), 녹각(鹿角), 소나무, 참나무, 가시나무, 종가시나무, 노목 등 여러 가지 초목들이 울창하다. …중략… 제주 사람들은 유사시에 그 속에 모여 숨어서 피난을 한다. 제주목의 표고버섯 역시 이런 곶에서 난다고 한다.”⁶⁾

라고 하여 곶자왈 지역에 자라는 나무의 이름을 정확히 적고 있다. 이들 수종은 현재까지 곶자왈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수목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곶자왈을 초목이 울창한 곶이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 유사시에 모여서 피난을 하는 장소로 표현하며 곶자왈의 이용에 대해 언급했다. 곶자왈의 면적과 경계를 파악하는 일 외에, 이용 방식을 언급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탐라지』는 『신증동국여지승람』보다는 123년이나 늦게 편집·발간된

6) 앞의 책, 100쪽.

문헌이지만, 제주 섬을 기록한 최초의 사찬(私撰) 지리지라는 점에서 이후에 편찬되는 여러 지리지들과는 그 의미나 가치가 다르다. 탐라 및 제주 관련 지리지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꽃자왈 관련 지명이 10개 등장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재된 꽃자왈 지명의 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록한 내용은 다르다. 먼저 두 고문헌에서 확인되는 공통적이거나 유사한 꽃자왈(畵) 지명은 김녕곶, 켓드르곶, 개(래)모살곶, 한곶 등 4개이다. 6개의 꽃자왈은 새롭게 추가되었고,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었던 7개의 꽃자왈은 빠져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문헌이 각기 편찬하는 과정에서 지역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당시에 수집된 정보의 오류이거나 중요성에 기초한 문제일 수도 있다. 만약에 두 문헌에 등장하는 꽃자왈 지명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라면, 두 문헌에 등장하는 꽃자왈은 한층 불어나, 꽃자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정도는 한층 더 높아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강창화, 2014). 또한 주기(州記)에는

“말에는 특이한 소리가 많아서 서울(京)을 서나(西那)라 하고 숲(藪)을 고지(高之)라 한다.”⁷⁾

라고 말하며 숲을 고지(高之)라고 발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강창룡(2016)은 고지의 곶(岬)은 바다쪽으로 좁고 길게 들어간 반도 모양의 땅 모양을 일컫는다고 해석했다.

7) 앞의 책, 100쪽.

『남환박물』은 이형상이 제주 목사로 부임할 때, 순력하며 직접 체험하고 들은 내용을 실었다. 『남환박물』에 이어 이원조 목사의 『탐라지초본』에도 일부 한자어 표기가 다르지만, 이원진의 『탐라지』와 똑같은 10개의 꽃자왈이 등장한다. 각 꽃자왈이 자리 잡은 위치를 설명한 내용을 보면, 후대로 이어지는 『남환박물』과 『탐라지초본』은 이원진의 『탐라지』에 나타난 지리적 정보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남환박물』 중 꽃자왈에 관한 기록으로는

“큰 숲(叢)은 산허리 아래 곳곳에 벌판과 골짜기가 숲이 되어 덮였다. 큰 것은 5~60리이고 작은 것도 10여리를 밀돌지 아니한다. 교목(喬木)이 하늘 높이 솟아서 햇볕을 가리고 바람을 막는다. 녁쿨(葛)과 등나무(藤) 및 칩들이 감기고 얽히어 널리 퍼져 있는데 온 섬의 형승(形勝)이 대저 같다”⁸⁾.

라고 말하며 큰 숲의 구체적인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같이 제주를 기록한 여러 고문헌에 꽃자왈이나 그 주변 숲 지명이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는 일면 꽃자왈에 대한 제주인들의 인식의 크기를 반영해 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꽃자왈을 기록한 문헌들이 전해지면서 꽃자왈을 중복 기록하였는데, 이는 꽃자왈에 대한 제주인들의 인식이 중복되어 기록으로 전승될 만큼 삶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이형상, 이상규, 오창명 역. 2009. 『남환박물』. 푸른역사. 48쪽.

2. 꽃자왈에 대한 인식

제주인의 생활 속에서 꽃자왈의 의미를 본다면 ‘꽃’은 숲이라는 의미에서 주로 긍정적으로 쓰였으며(선홍고지 간 낭을 비여단 배를 짓었주) 그에 반하여 ‘자왈’은 농사를 짓지 못한 황무지라는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쓰였다(추석 전이 소분 안하민 자왈 썩 멩질 먹으레 온다)(윤용택, 2014). 꽃자왈을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따라서 꽃자왈의 보전과 이용을 달리해왔다.

꽃자왈이 예로부터 제주인들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었는가를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엔 주로 1)포제단 2)선사시대 동굴주거지, 3)목재 및 임산물, 4)숯가마, 5)산전터, 6)공동목장, 7)사냥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화석 연료가 부족한 시절에는 숲에서 떨감을 구할 수 있었고, 숯을 구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 숯가마터를 만들고 임시로 거주하면서 주거시설인 움막, 경작지, 용수시설 등을 갖추어 꽃자왈 안에 생활 터전을 마련하였다.

꽃자왈 지대가 소나 말을 방목하기 위한 목장으로 이용된 경우, 마을 사람들은 공동의 목장을 조성하여 우마를 관리하였다. 꽃자왈이 용암지대이기 때문에 농업을 대신하여 자연의 순리에 따라 친밭(화전)이라는 경작법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공동목장 이용이나 친밭 경작 때문에 마을 공동목장조합에서는 해마다 임시회의가 열렸다. 그해 공동목장에 방목할 우마 수를 정하거나, 납세 금액을 정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공동목장 관리인 한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는데 그를 ‘꽃쟁이’라고 불렀다⁹⁾. 꽃쟁이가 있다는 건 꽃자왈이 제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었음을 말해

9) 고광민. 2016. 『제주생활사』, 도서출판 한그루. 171~173쪽.

준다.

또한 꽃자왈 특성 상 용암동굴은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을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은신처 및 피난처의 역할도 하였다. 이와 같이 꽃자왈은 삶의 현장이 되어 경제활동의 장소가 되어주거나 아예 삶의 터전 자체가 되어 주거지로서 역할을 했다. 따라서 꽃자왈은 이용 가능한 자원이면서 보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독특한 문화는 꽃자왈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꽃자왈 자원 이용방식은 지역이나 마을에 따라서 양식을 달리해왔다. 그러나 꽃자왈의 지질과 지형 특성이나 동식물의 안식처인 숲의 구조를 변형시켜 사라지게 하는 형태의 자원이용방식은 아니었다. 선조들은 항상 꽃자왈의 생태계가 유지되고 더불어 지질적, 지형적 특징도 그대로 보존되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만큼의 자원만을 이용해왔다(정광중, 2015)

하지만 꽃자왈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30여 년 동안 ‘쓸모 없는 땅’, ‘버려진 토지’로서 인식되며 개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팻감연료의 수요가 줄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산전터나 공동목장 운영이 어려워졌다. 개발 압력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산림보호정책 등에 의해 자원 이용도 소멸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맹아만 남아 있던 숲이 오늘날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다. 2000년대에 사람들에게 ‘꽃자왈’이라는 용어가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제주의 허파’, ‘생태계의 보고’, ‘지하수의 주요 함양지’ 등으로 다시 주목받아 제주도 내외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정광중, 2015).

꽃자왈이 생태계의 보고로서 가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제주도 자연자

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발에 대한 압력도 높아졌다. 오늘날의 꽃자왈 이용실태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골프장으로의 이용 방식 전환이다(정광중, 2015). 꽃자왈의 최근 2013~2014년도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골프장이 면적 788.7ha로 38.2%비율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관광시설 면적이 603.5ha로 29.2%를 차지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15). 토지 용도를 변경하여 개발한 곳의 비율만 전체에서 약 95.5%에 이른다. 꽃자왈이 과도한 개발 압력에 놓인 까닭은 꽃자왈의 경계와 가치에 관한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3. 꽃자왈의 어원 및 정의

꽃자왈에 대한 정의는 언어적 측면, 지질학적 측면, 법률적 측면 등에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 왔다. ‘꽃자왈’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어떤 의미로 쓰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학문 분야에 따라 학자들이 정의하는 바가 다르고, 시대 가치에 따라 꽃자왈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꽃자왈’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꽃’이나 ‘자왈’ 등의 단어는 제주인의 삶 속에서 흔히 사용하였다. 따라서 제주방언집을 토대로 꽃자왈의 정의를 살펴보면 석주명(1947)은 『제주도방언집』에서 표준어 ‘숲(숲)’의 제주어로 ‘술’을 제시하였고, 박용후(1988)는 『제주방언연구』에서 제주 문헌에 등장하는 ‘꽃’을 ‘산’이나 ‘숲’으로 해석하였다. 이어 현평효(1985)는 『제주도방언연구』에서 꽃자왈은 ‘숲’을 뜻하는 말인 ‘꽃’이나 ‘꽃’, ‘고지’ 등의 제주방언과 ‘가시덤불’이나 ‘잔 나무와 가시덤불이

있는 숲'을 뜻하는 말인 '가시덤벌', '자왈'로 표현하였다. 꽃자왈이라는 합성어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꽃'과 '자왈'이 따로 있다(강영봉, 2014). 따라서 꽃자왈은 예로부터 써온 제주방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옛 선조들은 '선흠꽃자왈'이라는 표현보다 '선흠꽃'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강영봉, 2014).

'꽃자왈'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공식 기록은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1995)이다. '꽃'이나 '고지'는 '산 밑의 숲이 우거진 곳'으로 풀이하고, '자왈' 또는 '자월'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 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의미한다. 이를 합쳐 '꽃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주말사전』(송상조, 2007),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제주특별자치도, 2009)에서는 '꽃자왈'을 각각 '깊은 산골에 나무나 덩굴 따위가 마구 엉켜 있는 수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으로 정의했다.

지질학적 측면에서는 꽃자왈 지대를 '토양의 발달이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잡석과 잡목 및 가시덩굴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경작지로 이용하기 곤란한 쓸모없는 지대'로 표현했다(송시태 등, 1996). 또한 암괴상 아아 용암류¹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꽃자왈용암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송시태, 2000). 다른 문헌에서는 '토양이 거의 없거나 그 표토층의 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으며, 화산 분화시 화구(오름)로부터 흘러나와 굳어진 용암의 크고 작은 암괴가 요철 지형을

10) 꽃자왈 용암류는 크게 아아용암류와 파호이호이용암류로 나눈다. 아아용암류는 용암이 흐르다 쪼개져서 크고 작은 암석 형태를 갖고, 파호이호이용암류는 용암이 깨지지 않고 고르게 퍼져 있는 모양을 갖는다.

이루고 있는 곳'(박준범 등, 2014)으로 학자의 견해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달라진다.

지질학적 외에 생태학적 측면에서 꽃자왈은 자왈로 덩불이 우거진 곳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꽃은 고문헌과 같이 숲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꽃자왈지대의 식물상 연구 결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 II급 종인 솔잎란(*Psilotum nudum*), 개가시나무(*Quercus gilva*) 등 6종류가 분포하고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총 214종류가 자라고 있어 식물구계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역으로 판단된다(김대신, 2012). 꽃자왈은 생태적으로 독립적인 식생이나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식생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꽃자왈을 정의하기는 어렵다(송관필, 2016). 하지만 꽃자왈 지대에서만 자라고 있는 특이식물 '제주고사리삼', '제주백서향', '빌레나무' 등의 보호가 요구되고 있고, 꽃자왈 지질 지대에 따라 식생구조가 다르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김찬수, 2017).

연구 논문에서 꽃자왈의 용어가 학자 개인의 의견에 따라 정의된 채, 공식적으로 꽃자왈은 1992년 '제주도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에서 처음 표기되었다. 또한 언론에 나타난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이경재 박사가 '재정확충 명분 선홍꽃 개발 재고틀'이라는 기사에서 90년대 꽃자왈에 가해지는 압력을 우려하는 글을 투고하여 꽃자왈을 '꽃'으로 표현한 바 있다. 꽃자왈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사회적으로 꽃자왈 정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해졌다.

법률적으로 '꽃자왈이란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진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덩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표

현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꽃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2014). 이는 꽃자왈의 ‘형상’을 나타내는 정의로 꽃자왈 실제 ‘범역’과 공간적 경계를 설정하기 곤란하다(제주특별자치도, 2017)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법률적으로 정의된 꽃자왈의 의미가 제주인의 삶과 제주도의 실정을 반영한 용어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4. 꽃자왈 정의를 위한 성찰

현재 꽃자왈 정의는 추상적이며, 제주도에 존재하는 꽃자왈 모든 세부적인 특성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꽃자왈이 매우 다양한 지질, 생태, 역사·문화적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어 짧은 꽃자왈의 정의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전용문 외, 2015). 꽃자왈의 정의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전 및 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꽃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꽃자왈 보호지역 지정기준은 생태, 지질, 역사문화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때, 지질적 요소는 동굴, 습굴, 용암 함몰지, 용암도랑, 튜물러스, 습지 등 특이 지형지질 분포지역(따호이호이 용암류)을 모두 포함한다. 꽃자왈은 지질학과 생태학을 종합하여 ‘크고 작은 암괴로 이루어진 수림대’라는 점에서 큰 틀을 갖는다. 또한 ‘꽃자왈 보호지역’은 ‘꽃자왈 보전조례’에 따라 지정하고, 조례 상 ‘꽃자왈 보호지역’은 ‘꽃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주도지사가 지역·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조 제2항).

꽃자왈 자연초지·자연관목림 보전가치 분류에 따른 식생보전기준 대

안은 현행 꽃자왈 지역은 대부분 생태계보전 지역 3등급과 4-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필지 면적의 각 30%와 50% 이내까지 산림 훼손이 가능하다. 자연관목림군락지 식피율 75% 이상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자연관목림군락지 식피율 75% 미만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꽃자왈 보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역사문화자원 보전 기준은 조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몇곳의 문화재만 미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꽃자왈 역사문화자원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산림문화자산 분류기준에 따른 관리를 이행해나가거나 문화재 지정 구역을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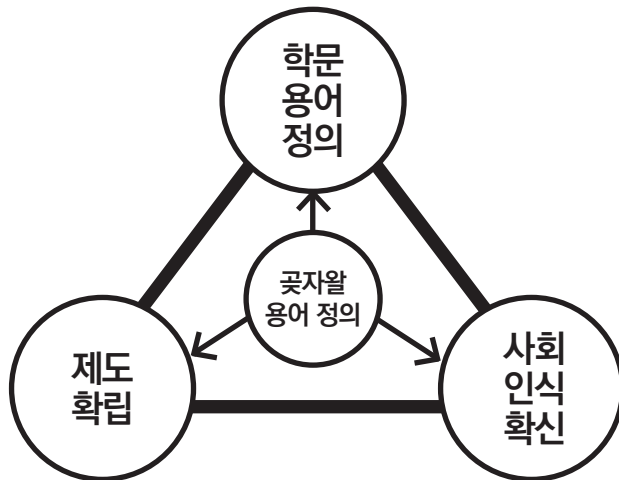
또한 꽃자왈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라도 앞서 살펴본 언어적, 지질학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정의에 따라 학문적인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 전용문 등(2015)¹¹⁾은 현재 꽃자왈의 정의가 꽃자왈의 모든 세부적인 특성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꽃자왈의 지질학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꽃자왈 보전 조례’(제주특별자치도, 2014)에 언급된 생태 및 역사·문화 요소를 일부 반영하고 지질분류체계와 결합한 분류표를 작성하여, 꽃자왈이 하나의 지질 및 생태 특성으로 대표된다는 인식을 넘어 다양한 꽃자왈 특성을 기호체계로 표시하였다. 꽃자왈의 특성을 크게 지질학적 분류, 생태학적 분류, 역사·문화적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지질학적 분류로는 파호이호이 용암류, 아아 용암류, 전이 용암류 등으로 나누고 생태학적 분류는 식생과 지형 특징에 따라 낙엽활엽수림, 상록활엽수림, 초지,

11) 전용문 외. 제주도 꽃자왈 지대의 지질학적 분류체계 제안과 의미. 지질학회지 51(2) pp235-241. 2015.

습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역사·문화적 분류는 농업, 채취 및 사냥, 역사 유적, 문화유적으로 분류 가능하다. 이와 같은 학문적인 분류체계는 대중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꽃자왈 분류체계를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꽃자왈 보전 조례’에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등의 제도 정비는 앞으로의 꽃자왈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꽃자왈 경계 설정이 어려운 이유는 꽃자왈 내 사유지의 경우, 꽃자왈로 묶이게 되었을 때 오히려 사유재산 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꽃자왈의 보전관리 문제는 실제 꽃자왈이 운용되고 가치 매겨지기 때문에 꽃자왈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다방면적 정의와 연구가 함께 진행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꽃자왈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꽃자왈의 생태계서비스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꽃자왈의 생태계서비스를 지도화하는 과정에서 꽃자왈 경계가 현실적인 도면 하에 구성될 것이고, 그에 따른 방안 [그림1]이 도출되었다.



꽃자왈의 용어 정의는 우선 학문적인 용어 정의가 뒷받침되어야 꽃자왈의 정확한 의미와 가치를 구명해낼 수 있다. 학문 용어 정의가 뒷받침된 후, 꽃자왈의 가치가 구명되었을 때, 제도적으로 꽃자왈을 보호, 보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인식 확산이 뒷받침되어야 꽃자왈 용어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III. 결론

인류의 생존은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살 수 있는가와 관련이 깊다. 인류는 언어에 의한 사고방식에 의존하고, 언어로 대표되는 인류의 사고방식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한다. 꽃자왈이 ‘꽃’이나 ‘자왈’로 불리었을 때, ‘깊은 산’과 ‘가시 덩굴’이라는 각각의 의미는 숲을 대하는 선조들의 의식을 반영했다. 꽃자왈의 용어에는 깊은 산을 신성하게 여기고, 가시덩굴을 조심히 하는 태도가 깃들여 있다. ‘꽃’과 ‘자왈’이 합쳐진 ‘꽃자왈’로 불리면서 꽃자왈은 제주도에만 있는 유일한 용암숲이라는 의미를 담게 되었다.

시대에 따른 꽃자왈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꽃자왈에 관한 옛 문헌과 현재 꽃자왈을 정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꽃자왈’ 용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처음으로 꽃자왈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90년대에는 한창 개발 위기의 압력에서 꽃자왈에 대한 보전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후 꽃자왈이 가진 생태학적·지질학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꽃자왈의 가치가 더욱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현재에는 꽃자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역사·문화적 가치

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꽃자왈이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했다면 우리는 계속 ‘꽃’과 ‘자왈’을 나누어 불렀을지도 모른다. ‘꽃자왈’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의 결과물이다.

Maffi and Woodley(2001) 등 관련 분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생물문화다양성은 생물다양성(the diversity of life)과 관련된 생물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발현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생물 문화가 인간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하고 진화됨을 이야기한다. 용어의 정의가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 경관을 이해하는 것이 주민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때 언어는 생물과 문화를 잇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매개체로 언어의 소멸은 그 언어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사고와 세계관에 관한 지식과 이해의 단위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언어의 소멸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여 전승하는 일이다. 꽃자왈은 꽃자왈의 어원 정의도 필요하지만 ‘꽃자왈’이라는 용어의 발생 과정과 변화 과정을 살펴 ‘꽃자왈’ 개념이 지질학, 생태학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인용문헌〉

- 고창석. 『탐라국시대사 : 조선시대부터 조선초까지의 제주도사』. 서귀포문화원. 2007.
- 고광민.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 고광민. 『제주생활사』. 도서출판 한그루. 171~173쪽. 2016.
- 강영봉. ‘꽃자왈’에 대한 어문학적 관견(管見). 꽃자왈의 인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2014 제6 회 제주환경리더 꽃자왈 포럼. 2014.
- 강영봉. 「제주 사회 통합과 제주어」. 탐라문화 43호.p4.
- 강창룡. 옛 문헌에 나타난 꽃[藪·串]과 그 내용. 학술심포지엄 꽃자왈의 정의(定議) 정립. 2016.
- 국립산림과학원. 『꽃자왈의 생태와 문화』. 2014.
- 국립산림과학원. 『선홍꽃자왈의 역사문화자원』. 2014.
- 김고운. 「컴플렉시티(Complexity) 개념에 대한 고찰 - 생태학 분야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21권0호. 2016. p5-34.
- 김대신, 고석형, 김수경, 김종식, 강인보. 「제주도 꽃자왈지대의 식물상」. 한국토양비료학회.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2012. 10. 132쪽. 2012.
- 김유리. 「충암(冲庵) 김정(金淨)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의 교육적 의미」.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2.
- 김찬흠, 고창석, 김혜우, 김상옥, 조성윤, 강창룡, 오창명, 오수정.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 김찬수. “서부지역 용암숲으로 살펴 본 용암과 식생의 관계”. 제민일보. 2017.
- 박용후. 『제주방언연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1988.
- 석주명.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1947.
- 송관필. 꽃자왈의 생태학적 정의. 학술심포지엄 꽃자왈의 정의(定議) 정립. 2016.
- 송상조. 『제주말큰사전』. 한국문화사. 2008.
- 송시태. 「제주도 암괴상 아아용암류의 분포 및 암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송시태, 고기원, 윤선. 「제주도 지하수의 함양과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숨골구조와 꽃자왈 지대에 관한 연구(1)». 대한지하수환경학회 학술발표회 요지집. 1996.

오창명. 『신동국여지승람』의 제주 지명 연구. 2004.

원종관. 「제주도(濟州島)의 형성과정(形成過程)과 화산활동(火山活動)에 관한 연구(研究)». 1975. 건국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이학논집 1권0호. pp7-56.

윤용택. 「꽃, 자왈, 꽃자왈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제주도연구 제41집. 제주도연구사. 2014.

이경재. “재정확충 명분 선홍꽃 개발 재고틀”. 한겨레. 1997.

이원진, 김상조. 『탐라지』.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이창숙, 여성희, 정소연.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제주도 전통식물의 통시적 연구」. 자원식물학회지. 29(2). pp225-234. 2016.

이형상, 이상규, 오창명 역.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주강현. 「언어생태전략과 민속지식의 문화다양성」.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32. pp7-30. 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사전』. 19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2007.

제주특별자치도.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20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꽃자왈의 특성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2014.

전용문, 안용산, 류춘길, 강순석, 송시태. 「제주도 꽃자왈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고찰」. 지질학회지 제48권 제5호. 2012.

전용문, 김대신, 기진석, 고정근. 「제주도 꽃자왈 지대의 지질학적 분류체계 제안과 의미」. 지질학회지 51(2) pp235-241. 2015.

정광중. 「꽃자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6권 제3호. pp15-32. 2015.

정광중. 「제주의 숲, 꽃자왈의 인식과 이용에 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pp11-28. 2012.

정광중. 「꽃자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5권 제3호

pp15-32. 2015.

정종우, 정소연.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동물의 통시적 연구」. 탐라문화 제 5권 pp275-29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Maffi, L. On Biocultural Diversity. Linking Language, Knowledge and the Environment. Washington & Lond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2001.

UNESCO . UNESCO World Report: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Paris: UNESCO, 2010.

K C I

〈국문초록〉

꽃자왈 용어 정의를 위한 고찰

최수정·현화자

본 연구는 제주도와 관련된 문헌 검토를 통해 꽃자왈이 정의되어진 과정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꽃자왈’ 개념이 지질학, 생태학 분야를 포괄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함을 논의하고자 한다. 꽃자왈은 제주도의 탄생과 같이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하지만 ‘꽃자왈’이라는 단어는 최근에서야 만들어지고 정의되었다. 현재 꽃자왈의 정의는 추상적이다. 제주도에 존재하는 꽃자왈 모든 세부적인 특성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인들은 선조로부터 꽃자왈에 대한 정보를 얻어 몸소 체득하였기 때문에 제주인들이 꽃자왈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는 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고문헌(古文獻)이나 고지도(古地圖)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 당시 꽃자왈 지역의 지리적 개념과 꽃자왈 지역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꽃자왈이 묘사되어 있는 4개의 문헌을 살펴본 결과, ‘꽃’과 ‘자왈’로 따로 불리어지던 숲이 ‘꽃자왈’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이름 붙여졌다. 꽃자왈의 정의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전 및 관리에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꽃자왈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꽃자왈 보전 조례’에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꽃자왈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꽃자왈의 생태계서비스 측면에 대한 연구와 꽃자왈용어 정의를 위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주제어: 꽃자왈, 정의, 문화생태학, 생물문화다양성, 생태 용어 정의

<Abstract>

Consideration of defining Gotjawal

Choi, Su-Jung · Hyun, Hwa-Ja

(Warm Temperate and Subtropical Forest Research Center)

This study is aimed to clarify the definition process and meaning of 'Gotjawal'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In addition, the concept of 'Gotjawal' should be discussed for its comprehensive perspective including geology and ecology. Gotjawal began as the birth of Jeju Islands, the current landscape of Gotjawal has been made by human activity. However, the term 'Gotjawal' was expressed and defined recently. The term of 'Gotjawal' is conceptual meaning now and does not consider all characteristics of Gotjawal distributed in Jeju Island. Since people in Jeju Island have learned Gotjawal from their ancestors, it can be inferred how the Jeju people perceive and utilize Gotjawal through historical records. According to ancient documents or maps, the geographical knowledge of Gotjawal area and the change of the area can be confirm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our documents that Gotjawal is described, the forest called 'Got' and 'Jawal' was renamed to 'Gotjawal'. since the term of Gotjawal is not systematically defined it can cause many problems in term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Thus, the details of 'Gotjawal conservation ordinance' and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nserve and manage Gotjawal. For this, it is

necessary to research ecosystem service for estimating economic value of Gotjawal and to organize concepts for defining Gotjawal.

Key words: Gotjawal, Terms define, Cultural ecology, Bio-cultural diversity, Ecological terma define

투 고 일	2018년 3월 7일
심 사 일	2018년 3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8년 3월 23일

K C I